

광주 '어번폴리' 시민 손으로 가꾸고 보존한다

“어번폴리 앞에서 사람을 고백하고, 한 여를 밤연주회도 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가꾸고 보존하겠습시다.”

광주 도심 곳곳을 장식하게 될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어번폴리(Urban folly)’를 시민들이 앞장 서 가꾸기로 했다.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가칭)은 21일 ‘아시아 문화마루’(광주 콘스트랄레)에서 ‘광주 어번폴리 조성전략과 미래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폴리’는 ‘광주’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추진

수, 조선대 조용준 교수와 신정철·이순미 건축사 등 시민과 전문가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모집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늘려, 어번폴리별 관리자들을 정해 건축물과 그 주변을 돌볼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번폴리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과 향후 어번폴리가 들어선 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어번폴리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



21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이 어번폴리 조성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토론회… 도심 13곳 건립 후 관리 방안 논의 시민·학생 등 회원모집 관리자 선정… 스토리뱅크·공연 등 계획도

하고 있는 어번폴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이 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임이다. 어번폴리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이야기가 담긴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건축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했다.

광주 도심 13곳에 흩어져 있는 어번폴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모임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준비모임에는 호남대 건축학과 신태양 교

토리뱅크’를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유명 건축가의 작품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어번폴리별 문화 공연 등을 진행해 하나의 명소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순미씨는 “시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재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어번폴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광주시가 민관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어번폴리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도슨트를 모집해 운영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어번폴리 설계와 제작 과정에 시민과 지역 건축학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호남대 건축학과 신태양 교수는 “향후 건립되는 어번폴리는 일반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

야 하고, 시민들이 계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번폴리는 2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광주읍성터, 푸른길 등 13곳에 기념할 만한 건축조형물을 세우는 계획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중앙아시아 신화 소재 시나리오 공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9월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의 신화와 민담, 영웅사시 등을 주제로 하는 창작시나리오를 공모한다.

공모는 장편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게임의 시나리오 부문과 장편소설을 제외한 트리트먼트(시놉시스 전 단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출품작은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마감은 9월2일까지.

대상인 ‘황금빛 이야기상’은 상금 2000만원, 우수상은 시나리오와 트리트먼트를 합쳐 모두 9편을 선정해 각각 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이트(www.ct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704-345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일 담양서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

한국문화원연합 전담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담지회(회장 김학근)가 주최하는 ‘제23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이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담양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린다.

‘전남 농경문화 유산 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이종범(조선대 사학과)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신중(전남대 국문과)교수, 조태성(전남대 HK연구교수)씨, 천득열(전남대 건축학부)교수, 김옥희(광주문화재단)씨가 각각 ‘전남의 농경과 그 성격’, ‘전남의 농경 문화’, ‘전남지방 농경의 건축적 의미’ 4개의 주제로 나눠 발표한다.

또 정행안(무안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정형택(영광문화원장)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후에는 오후 2시부터 면암정과 송강정 등 농경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답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367-10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신포니에타가 들려주는 ‘초여름의 클래식’

내일 광주신포니에타홀… 전석 무료

문화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초여름의 향기’ 공연이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신포니에타홀(북부경찰서 인근 사본레딩문화빌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레퍼토리를 꾸며 클래식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정병렬 대표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노연선, 테너 김백호, 문화신포니에타 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유쾌한 미방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이다.

또 피아노 4중주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을 감상하며 남성 4중창으로 ‘You raise me up’, ‘Oh, Happy day’ 등 감동송 선사한다.

창단 8년째인 문화신포니에타는 정기연주회와 지방 순회공연,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통해 클래식을 알리는 단체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후한 하모니… 노래하는 아버지들

광주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오늘 문예회관 대극장

IMF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가던 1998년 노래를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모였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노래’로 서로를 다독이고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고 싶어하였다. 자신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전하자는 의지를 담아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한세준)을 창단했다.

현재 단원은 모두 50여명, 직업은 교사, 사업가, 회사원, 의사 등으로 다양하고 연령대도 30대부터 60대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광주아버지합창단의 16번째 정기연주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윤원중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오 수재너’,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백만송이 장미’, ‘밀밭의 파도 소리’, ‘해변으로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한효선, 스콜피아 싱어즈,

KBS 어린이합창단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 무대를 빛낸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아버지 합창단은 제주도 탐라 합창축제 제3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도 만들어갔다.

무엇보다 단원들은 노래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창단 첫째 실직자 자녀돕기 음악회를 열었고 백혈병 소아암 돕기 등 다양한 자선음악회를 진행했다. 또 해마다 또 행복요양원 등 시설을 방문,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번 공연 수익금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누구나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매주 월·목요일 오후 8시 함께 모여 연습한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cafe.daum.net/farus3190. 문의 010-48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끼 꼬아 달걀 꾸러미·망태기 만들기

김치박물관, 25일 직물공예 체험학습

김치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치박물관이 오는 25일 광주시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 내 박물관에서 직물공예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새끼 꼬기를 익혀 달걀 꾸러미·망태기·짚방석 등을 만들어 보고, 동물 모양 직공예품 제작을 체험해본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과 초등학생(학부모 동반)은 오는 24일까지 김치박물관 홈페이지(kimchitown.gjcity.net)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비는 2인 1조 1팀 당 재료비 5000원이다. 문의 062-673-840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6월 22일 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30% 확 넓어진 앞뒤 좌석간격

프리미엄 인터리어, 아름다운 홀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 커피 LAVAZZA 런칭

더 넓고 넓어진 주차공간

최신형 저오션 이벤티티움, 무도실, 강의실

www.cinus.co.kr ARS 1544-0070

상담원 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상무점 하남점

모든것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극장

프리미엄 인터리어, 아름다운 홀

이제 대리별고 영화보자

30% 확 넓어진 앞뒤 좌석간격

TAKE OUT ITALY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커피 LAVAZZA 런칭

더 넓고 넓어진 주차공간

내부 리뉴얼 공사로 인해 6월 21일까지 임시휴관합니다.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1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2세)
2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6관	쿵푸팬더2 (전제)/프리스트 (15세)
7관	슈퍼에이트 (12세)
8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9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
10관	캐리비안의해적 (12세)/모비딕 (15세)
11관	쿵푸팬더2 (전제)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원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
2관	슈퍼에이트 (12세)
3관	모비딕 (15세)
4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5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6관	프리스트 (15세)/화이트 (15세)
7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8관	씨니 (15세)
9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
10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그분이 돌아오셨다!

복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2관	씨니 (15세)
3관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 (15세)
4관	슈퍼에이트 (12세)
5관	프리스트 (15세)/쿵푸팬더2 (전제)
6관	모비딕 (15세)/씨니 (15세)
7관	러브 앤 프렌트 (15세)
8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9관	그린랜턴-반지의선택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